“또 다른 세월호 비극 없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세월호 희생자 이승현군 아버지 이호진씨 광주 강연

무능한 정부·세상의 무관심에 ‘십자가 순례’ 시작

‘민주화 성지’ 광주 시민의 격려와 지지 잊지 못해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히는 대신 평소 좋아하던 운동복과 축구화 차림으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잘 몰랐습니다. 입관하는 순간 담배를 넣어주는 친구들을 보며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승현이는 이제 하늘 나라 별이 됐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 담배라도 한 개비 같이 피우며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181. 38. 900.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안산 단원고 이승현 군 아버지 이호진(56)씨와 관련된 숫자다. 세월호 참사 181일째 되는 지난 13일 저녁 7시. 전남대 용봉문화관을 찾은 이씨는 잊혀져 가는 세월호를 지키기 위해 38일간 900㎞를 걸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내 새끼를 먼저 보낸 아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은 저희 유가족들로 끝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승현 군 아버지 호진 씨와 김웅기 군 아버지 학일 씨. 두 사람은 7월 작열하는 태양 아래 180만 번 걸음을 5㎏ 십자가를 지고 걷고 또 걸었다. 그 끝에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900㎞를 짊어졌던 십자가와 팽목항에서 가져온 물을 건넸다. 이씨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교황에게 단독 세례를 받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얻었다.

따뜻한 4월 봄바람이 불던 날 시작된 참사는 목도리로 옷깃을 여미는 10월이 되도록 달라진 게 없다. 팽목항에는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상규명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유가족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민상주’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마련한 자리에 온 이씨는 강연 시작 전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900㎞를 걸으며 십자가를 짊어졌던 어깨는 아들의 생전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검게 그을린 얼굴 속 주름이 깊게 파인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아들 모습에 소리 죽여 눈물을 훔쳤다. 힘겹게 무대에 오른 그는 광주시민에게 감사인사로 강연을 시작했다.

“2200리 900㎞를 걸을 때 호남에서 가장 긴 구간을 걸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열렬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광주시민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5·18을 잉태하고 민주화의 성지가 된 광주가 왜 다른 도시와 다른 지 이번 순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지는 세월호를 대중이 기억해 주기 바라며 순례를 시작했다.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900㎞를 걸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유가족들은 세상의 무관심에 몸서리치고 있었다.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기다리던 1000명 중 700명을 구하고 300명이 희생됐다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기다리던 304명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유족들이 목숨을 던져 진상규명을 요구해도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181일 동안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노란 리본을 달고 함께 울어준 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900㎞를 걷기 시작했지만 자발적으로 순례에 동참한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마쳤다. 길 끝에서 새로운 목표도 얻었다. 사랑하는 아들 승현이처럼 미래 꿈나무들에게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유가족 몫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그 사람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상규명은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잊혀져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길 위에서 희망을 묻다’라는 주제로 광주시민을 만난 세월호 유가족 이호진씨. 그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산악인 김재수 히말라야 사진전’

23~31일 남해고속도 장유휴게소…캠핑 체험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휴게소 ㈜가야유통·대표이사 김재봉)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산악인 김재수 특별사진전’ 야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히말라야 산군 가셔브룸Ⅰ·Ⅱ봉’을 주제로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재수 대장은 지난 1990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2011년 초오유까지 21년동안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모두 오르는 위업을 달성했다. 세계에서 27번째, 한국에서는 4번째 완등이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장유휴게소는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휴게소로 캠핑체험장으로 유명하며 최근에는 낙남정맥 MTB 코스와 연계되면서 경남 MTB클럽회원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사진전 감상과 함께 캠핑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

전남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6명 가입

전남사회복지모금회 클럽 창단식 등 가져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4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전남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가입식과 클럽 창단식을 갖고 전남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가입한 신규 회원은 김영수 태영산업·태영전자 대표이사, 강철수 목포한국병원장, 박말희 목포미치과의원 원장, 김경옥 영광기독·신하병원 이사장, 이승택 목포중앙병원장,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 등 6명이다.

한번에 신규 회원이 6명이나 동시에 가입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로써 2011년 1호 회원이 탄생한 전남아너소사이어티는 올들어 9명이 급격히 늘면서 전체 회원 수가 19명이 됐다.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은 기부금 1억원 이상을 완납하거나 약정한 개인 기부자들 모임으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575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전남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창단식도 함께 가졌다. 클럽이 공식적으로 창단됨에 따라 아너 회원들 간 교류와 복지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을 창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클럽 창단을 계기로 전남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효우 선생, 전남대에 호남 고문서 기증

한글 편지 등 17~19세기 조선 후기 사료 700여점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책임교수 김대현)은 국내 표구학을 대표하는 이효우(73) 선생으로부터 최근 옛 한글편지 등을 포함한 고문서 700여점을 기증받았다. 이들 문서는 서울에서 표구점을 경영하는 그가 평생 모은 것으로, 호적문서·간찰·고목·흔서·고강 성적서·제문·통문 등으로 호남지역에서 작성된 고문서 등이 포함됐다.

이 선생은 강진 출신으로 어려서 상경, 60여 년 동안 서울 낙원동에서 ‘낙원표구사’를 경영했다.

수많은 각종 문화재급 서화와 고문서 등을 복원해 왔으며, 우리나라 장황학(표구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장황이란 서화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옛 서화 한 점 한 점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장황과 관련된 전래 재료와 비법을 연구해왔고, 명지대 미술사학과에 출강해 후학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문서들은 주로 나주 초동 이씨, 영광 수성 최씨, 하의도 김해 김씨, 강진 밀양 박씨, 남평 경주 최씨 및 문익점 후손가 등의 가문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이번 기증된 문서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 후기의 호남지역 고문서들이다.

이번 기증품은 모두 문서 출처와 작성연대가 확실하고 호남 지역의 일괄 문서라는 점에서 한층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의 안길정 연구원은 “기증받은 고문서에는 호구단자(호적 신고서)와 명문(매매 계약서) 100여 점을 비롯해 산송(묘지다툼) 문서와 한글편지도 각각 수십여 점에 이른다”며 “이들 문서는 지역사정이나 사회 실상을 담은 1차 사료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우 선생은 “평생 모은 호남 지역 고문서를 지역 고문헌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곳에 기증하고 싶었다”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평생 모은 고문서를 아낌없이 기증했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박영순(전 5·18부상자회 회장)·설화심씨 장남 형준군, 박유권·최양근씨 장녀 아름양=18일(토) 낮 12시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종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강원구)회장단 간담회=18일(토) 오전 11시 회관 3층 대회의실 062-228-3368.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강원구) 6대문중 시군구 종회장단 간담회=18일(토) 오전 11시 진주 강씨 종회관 대회의실 062-228-3368.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회(회장 이철환) 월례회의=21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의=22일(수)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동창회

▲대촌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희수)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잔치=19일(일) 오전 8시 모교 운동장 010-5604-6685.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이민수) 친선 체육대회=19일(일) 오전 9시 30분 모교 운동장 062-224-1461.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동맥인 한마음 큰잔치=19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62-527-6611.

▲송원고총동문회(총동문회장 황명성) 한마음대축제=19일(일) 오전 8시 30분 송원대학교 운동장 062-384-7447.

알림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信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信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수강생=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수강생=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텝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부음

▲박예덕씨 별세 신성인·형주(광주일보 풍암지국장)·정순·정님·정심·정희·정자씨 모친상=발인 16일(목) 미래로 21병원 장례식장 2호실 062-450-1444.

▲김용서씨 별세 태호·성희·진희·경미·슬기씨 부친상=발인 16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김순열 님(여/93세)
女: 장화연
孫/孫婦 : 고용준, 고허준/최종현, 고호준/양지혜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조형래 님(남/38세)
父 : 조갑석 母 : 최형숙
未亡人 : 임주영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401호 故김미정 님(여/49세)
子 : 서강원 女 : 서유리
夫君 : 이석호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이계남 님(여/65세)
子: 기성호 女/壻 : 기은미/조명구
夫君 :기길종
• 발 인 : 10월 1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